

I. 일자리 創出 效果 分析의 必要性

- (必要性) 일자리 창출이 效率的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느 산업 혹은 부문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가에 대한 분석이 先行되어야 할 것임
 - 사상 유례없는 실업난 속에서 근본적인 실업 대책으로서 경제 전체의 고용흡수력을 높일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 (分析 方法) 成長性和 雇用吸收力 指標들을 이용해 주요 부문의 長短期 일자리 창출 효과를 비교·분석함
 - 成長性: 長期的인 일자리 창출 기대 효과를 나타냄
 - 매출액증가율을 이용
 - 雇用吸收力: 短期的인 일자리 창출 효과를 나타냄
 - 가능하면 雇用誘發係數를 이용하여 직접적인 고용효과 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고용효과도 고려
 - 직접적인 효과만을 나타내는 雇用係數를 보조지표로 사용

98년 4월 실업률 6.7%, 실업자수는 사상 최대인 143.4만 명에 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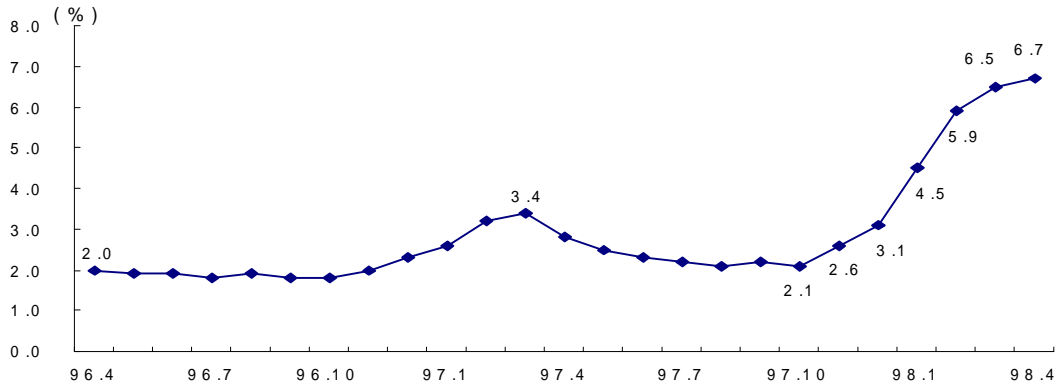
○ IMF 구제금융 이후 실업률이 급등하여 실업대책이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음

- 97년 11월 외환위기를 맞은 이후 경기침체가 심화되면서 실업률이 급등하였음
 - 월별 실업률 추이를 살펴보면 97년 11월 2.6%를 기록하면서 상승하기 시작한 실업률이 98년 4월에는 6.7%(실업자수 143.4만 명)까지 상승하였음
- 사상 유례없는 실업 사태를 맞이하여 이의 원만한 해결이 사회 안정의 핵심 조건이 되고 있음
 - 더불어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서도 실업문제 해결이 필수적임

○ 근본적인 실업 대책은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제 전체의 고용흡수력을 높이는 것임

- 실업 대책 중 근본적인 것은 역시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경제의 고용흡수력을 높이는 것임

<그림 1> 월별 실업률 추이



단기적으로는 실업자 생계보호가 중요하나, 장기적으로는 고용 가능성 증대가 더 중요함

- 단기적으로는 고용보험 확대 및 사회안전망 확충을 통한 실업자 생계 보호가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실업자의 구직을 촉진하는 대책이 필요함
- 이를 위해서는 고용가능성을 높이는 직업안정망 확충 및 직업훈련 확대, 일자리 창출 등에 중점을 둔 실업 대책이 필요함
- 특히 지금처럼 극도의 경기 침체를 겪는 와중에는 직업안정망 확충이나 직업훈련 확대보다는 취업 가능한 일자리 창출이 더 중요함

부문별 일자리 창출 효과 분석을 통해 효율적인 정책 시행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여기서는 효율적인 일자리 창출 정책 마련을 위해 부문별 일자리 창출 효과 분석을 시도하였음
- 현재 근본적인 실업 대책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은 극히 한정될 수밖에 없음
-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제도약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금융 및 기업 구조조정 등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일들을 처리하여야 함
- 또한 사회 불안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실업자들이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일정한 재원을 분배하여야만 함
- 따라서 본고에서는 주요 부문별로 일자리 창출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분석하여 한정된 재원의 효율

제조업과 서비스업,
지식집약적 산업과
비지식집약적 산업,
벤처기업과 대기업
및 중소기업 등이
주요 검토 대상임

적인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 주요 부문으로는 먼저 정부 정책 등에서 언급되는 벤처기업, 지식집약적 산업에 초점을 맞추었음
- 그 외에 전통적인 산업별 및 규모별 분류에 따라 일자리 창출 효과를 비교·분석함
- 이를 통해 좀 더 효율적인 일자리 창출 정책 시행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주요 비교 대상 부문의 성장성과 고용흡수력을 비교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의 효과를 분석함

- 주요 비교 대상 부문은 크게 산업별 분류와 규모별 분류로 구분하였음
 - 산업별 분류에서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지식집약적 산업과 비지식집약적 산업, 제조업내 기간산업과 비기간산업 등이 주요 비교 대상 부문임
 - 규모별 분류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리고 중소기업내 벤처기업이 주요 비교 대상 부문임
- 부문별 일자리 창출 효과는 단기 고용흡수력과 성장을 동시에 고려하여 비교함
 - 고용흡수력은 단기적인 일자리 창출 효과를 나타내는 지표이며, 가능하면 고용유발계수를 이용하여 해당 부문의 직접적 고용 효과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효과도 같이 고려하였음
 - 장기적인 고용흡수력은 그 부문의 성장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므로, 매출액증가율을 이용한 성장성 지표는 장기적인 고용흡수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간주될 수 있음
 - 또 성장성 지표는 바람직한 산업구조조정 방향에 대해서도 일정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임

○ 분석 결과의 해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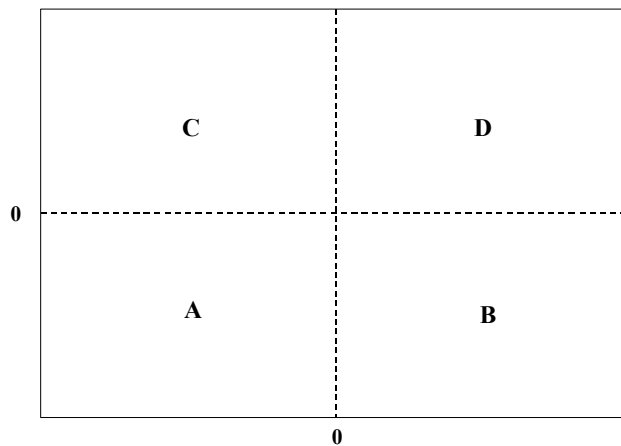
- 구체적인 분석은 X축에 고용흡수력 지표인 고용유발계수를, Y축에 성장성 지표인 매출액증가율을

성장성과 고용흡수
 력이 모두 높은 산
 업은 장기적으로나
 단기적으로나 일자
 리 창출에 효과적인
 산업임

나타내는 그래프를 <그림 2>와 같이 그려 시행하
 였음

- 여기서 각 축의 값이 0인 부분은 비교 대상 부문
 전체의 평균 수준을 나타내는 것임
- 따라서 그래프에서 D영역은 성장성과 고용흡수력
 모두 평균을 상회하는 부분으로 장기적으로나 단
 기적으로 일자리 창출에 효과적인 산업임
- A영역에 위치하는 산업은 성장성과 고용흡수력
 모두 평균을 밑돌기 때문에 고용 창출 효과가 떨
 어지는 산업이라 할 수 있음
- B영역의 산업은 단기적인 고용창출효과는 기대할
 수 있지만 새로운 시장 개척이나 아이템의 개발
 이 없다면 장기적인 효과는 그리 기대할 수 없는
 영역임
- C영역은 단기적인 고용창출효과보다는 장기적인
 효과가 기대되는 영역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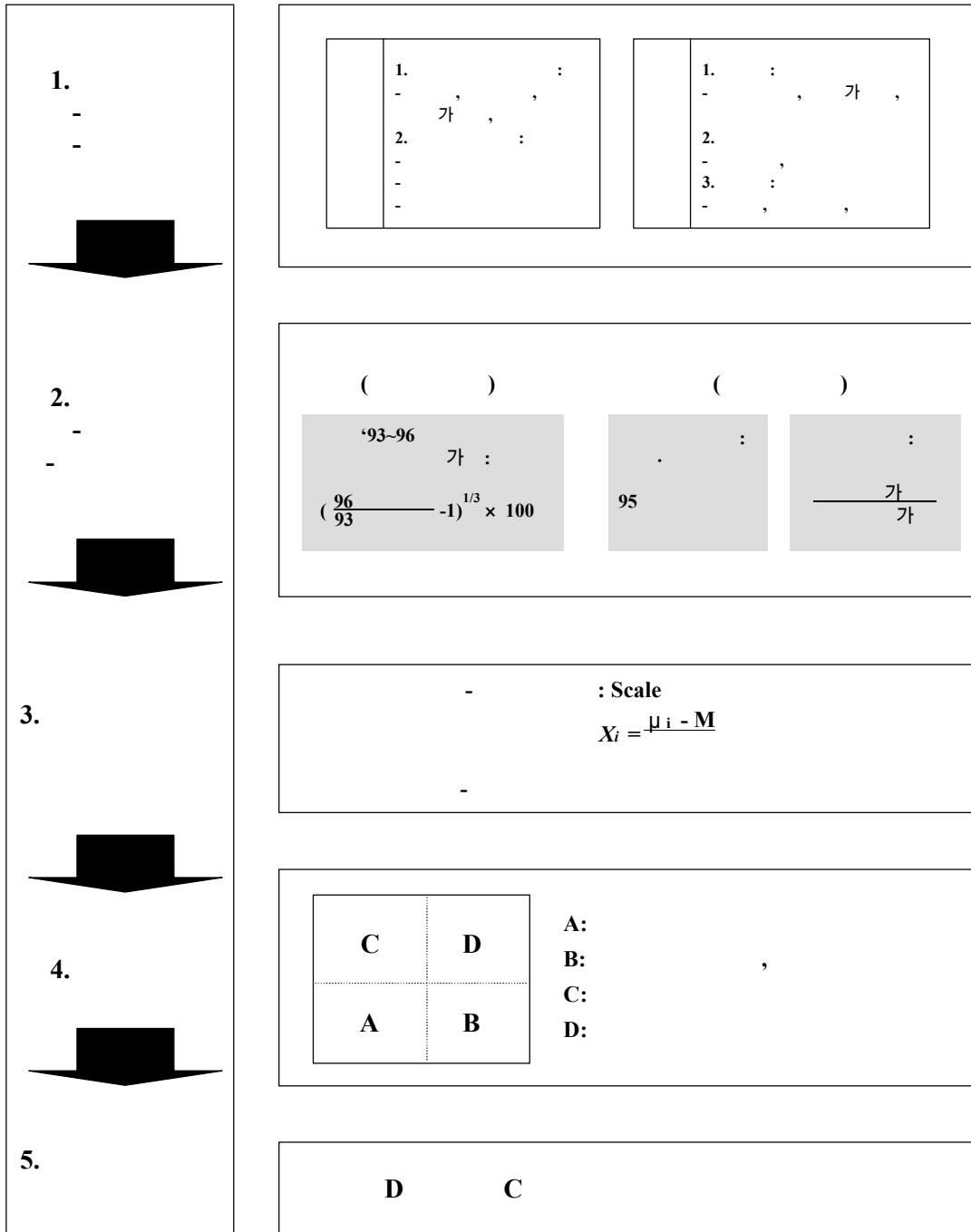
<그림 2> 효과 분석에 사용되는 그래프



- 여기서 문제는 장·단기 일자리 창출 효과가 상충
 하는 B영역과 C영역 중 어느 쪽을 중시하는 가임
- 당장의 실업 대책 측면에서는 단기적 효과가 높
 은 B영역에 대한 지원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

-
- 나, 장기적인 산업구조조정 방향을 고려할 경우
부적절할 수 있음
- 실업 대책이 향후의 산업구조조정과 정합되게 전개되어야 한다면, B영역보다는 C영역에 정책의 우선 순위가 주어져야 할 것임
 - 결국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책은 D영역과 C영역에 집중되어야 할 것임

<그림 3> 연구 방법



II. 일자리 創出 優位 産業

- 서비스업의 雇用誘發效果가 우월함
 - 서비스업은 성장성 및 단기적인 직·간접 고용유발효과가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93년에서 96년 사이의 연평균 19.9%의 매출액증가율을 기록(전산업 평균 17.4%)
 - 10억 원 생산에 의한 직·간접 고용유발 인원 수도 41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전산업 평균 32.7명)
 - 제조업의 성장성 및 직·간접적 고용유발효과는 평균에서 약간 미달함
 - 93년에서 96년 사이의 매출액증가율 16.7%, 고용유발인원 26명
- 조립금속, 건설, 고무 등 중간지식집약적 산업이 성장성이나 단기적인 직·간접 고용유발효과 모두 평균 이상을 나타내고 있고, 자동차, 화학, 영상, 통신 장비 등 지식집약적 산업은 성장성 면에서 가장 우월한 것으로 나타남
 - 93년에서 96년 사이의 연평균 매출액증가율은 지식집약적 산업과 중간지식집약적 산업이 각각 19.5%, 17.9%를 기록, 전산업 평균을 기록
 - 의복, 1차 금속, 섬유 등 비지식집약적 산업은 12.6%에 불과
 - 10억 원 생산에 의한 직·간접 고용유발 인원 수는 지식집약적 산업이 21.3명에 불과한 반면, 중간지식집약적 산업이 37.2명을 기록함
 - 비지식집약적 산업은 34명 수준임

서비스업은 장기 및 직·간접 고용 유발 효과가 모두 높음

○ 제조업과 서비스업

- 서비스업 부문은 성장성과 고용유발계수가 모두 높은 D영역에 위치하고 있어 장기는 물론이고 단기적인 직·간접 고용유발효과가 모두 높은 산업으로 나타났음
- 서비스업의 93년에서 96년 사이의 연평균 매출액 증가율은 19.9%로 전산업 평균인 17.4%보다 높음
- 또한 서비스 부문 10억 원의 생산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41명의 고용을 유발하여 전산업 평균인 32.7명보다 높은 것은 물론 비교 대상 산업 중 가

**제조업의 장기적인
고용 유발 및 직·간접적인
효과는 평균 수준**

- 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건설업의 경우 성장성이 낮아 장기적인 고용 유발 효과는 별로 없지만 고용유발계수는 평균 수준을 보여 단기에 있어서 직·간접적인 고용 효과는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건설업의 매출액 증가율은 14.5%로 비교 대상 산업 중 가장 낮은 수준을 보임
 - 10억 원 어치의 생산이 직·간접적으로 유발하는 고용인 수는 32명으로 전산업 평균과 비슷하였고 제조업이나 전기·가스업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을 보임
 - 제조업은 A영역에 위치하고 있지만 성장성, 고용유발계수가 평균과 가까워 장기적인 고용유발 및 직·간접적인 효과 모두 평균 수준임¹⁾
 - 매출액증가율은 16.7%, 10억 원 당 고용유발 인원은 26명으로 전산업 평균에 가까움
 - 전기·가스업의 경우 장기적인 성장성은 평균 수준이지만 직·간접적인 고용 효과는 미미함
 - 매출액증가율은 17.6%로 전산업 평균과 비슷하지만 10억 원 당 고용유발인원은 비교 대상 산업 중 가장 낮은 12명에 불과함
 - 고용계수를 이용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서비스

1) 제조업의 경우 90년에 비해 고용유발효과가 급격히 약화되고 있음. 95년 산업연관표상의 고용유발계수 추이를 살펴보면 전산업의 계수가 모두 감소하였지만 특히, 제조업의 경우 서비스업 등에 비해 고용유발효과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약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산업별 고용유발계수의 추이 >
(단위: 명/10억원)

	1990(A)	1995(B)	A/B
농림어업	164	91	0.55
광업	50	22	0.44
제조업	57	26	0.46
전기·가스·수도업	20	12	0.60
건설업	54	32	0.59
서비스업	76	41	0.54

자료: 『1995년 산업연관표』, 한국은행 (미발간)

업, 전기가스업, 제조업이 모두 직접적인 고용유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건설업의 경우에는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남

- 매출액이 1% 증가하였을 경우 고용 인원은 제조업, 전기·가스업, 서비스업의 경우 각각 0.02%, 0.14%, 0.16% 증가하는 반면, 건설업은 0.87% 감소하는 것으로 나옴²⁾

<그림 4> 산업 대분류에 따른 분석 결과



2) 고용계수가 음수로 나오는 것은 해당 산업의 고용인원수가 분석기간 중 감소한데 기인함

<표 1> 대분류별 매출액 증가율 및 고용유발계수

	매출액증가율 (‘93~’96 연평균 성장율, %)	고용유발계수 (명/10억 원)	고용계수
전산업 평균	17.4	32.7	-0.18
제조업	16.7	26.0	0.02
전력·가스·수도업	17.6	12.0	0.13
건설업	14.5	32.0	-0.87
서비스업	19.9	41.0	0.17

주 : 굵은 숫자는 평균보다 높은 경우를 표시함

**지식집약적 산업이
성장성 측면에서 장
점이 있으나 D 영
역에 속하는 중간지
식집약적 산업의
중요성도 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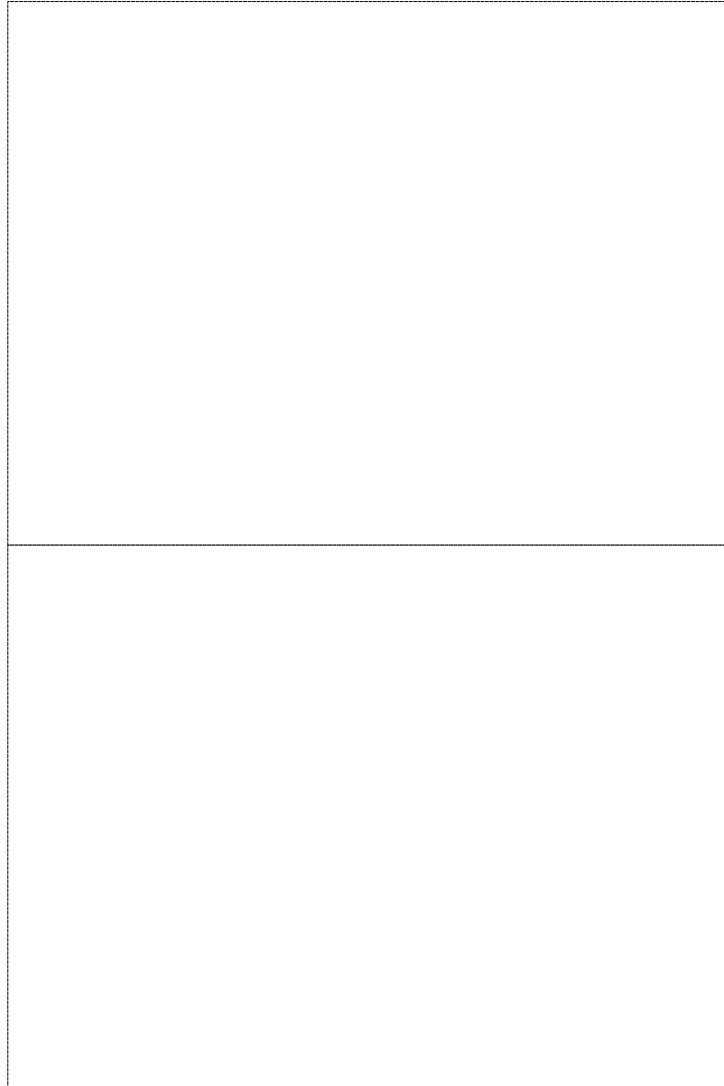
○ 지식 집약적 산업 여부

- 성장성을 기준으로 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지식 집약적 산업, 중간 지식집약적 산업, 비지식집약적 산업 순으로 고용유발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³⁾
 - 연평균 매출액증가율은 지식집약적 산업이 19.5%, 중간지식집약적 산업이 17.9%로 전산업 평균인 17.4%보다 높았음
 - 반면 비지식집약적 산업은 12.6%에 불과함
- 반면, 고용유발계수를 기준으로 한 직·간접적인 고용유발효과는 중간지식집약적 산업이 가장 크며, 지식집약적 산업의 경우 그 효과가 상대적으로 약함
 - 생산 10억 원당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고용인수는 지식집약적 산업이 21.3명에 불과하여 중간 지식집약적 산업의 37.2명, 비지식집약적 산업의 34명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임

3) 지식집약적산업 중 기술사업서비스업(K72, K73, K742)의 경우 연구 및 개발업(K73)의 자료는 전혀 구할 수 없어 분석에서 제외하였음. 또 기술사업서비스업의 중분류 및 세분류 고용유발계수 자료도 찾을 수 없어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K)의 고용유발계수를 대신 사용함. 또한 건축 엔지니어링 및 기타 기술서비스업(K743)의 경우는 성장성 지표 및 고용인원수를 구할 수 없어 기타사업관련서비스업(K74)의 지표를 이용함

-
- 고용계수를 이용한 직접적인 고용유발효과는 지식 집약적 산업이 제일 크며, 중간지식집약적 산업과 비지식집약적 산업은 평균 수준에 약간 못미치는 수준임
 - 매출액이 1% 증가하였을 경우 고용 인원은 지식 집약적 산업의 경우 0.14% 증가하는 반면, 중간 지식집약적 산업과 비지식집약적 산업은 각각 0.29%, 0.24% 감소함

<그림 5> 지식 기반 유무에 따른 분석 결과



<표 2> 지식 기반 유무별 매출액 증가율 및 고용유발계수

	매출액증가율 (‘93~’96 연평균 성장율, %)	고용유발계수 (명/10억 원)	고용계수
전산업 평균	17.4	32.7	-0.18
지식집약적 산업	19.5	21.3	0.14
중간지식집약적 산업	17.9	37.2	-0.29
비지식집약적 산업	12.6	34.0	-0.24

주 : 굵은 숫자는 평균보다 높은 경우를 표시함

Ⅲ. 일자리 創出 優位 製造業 分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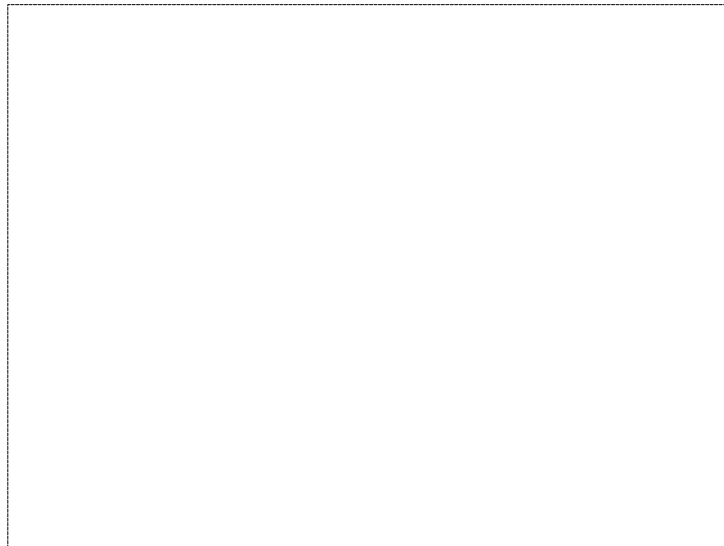
- (品目別 分類) 성장성 측면에서 볼 때 組立加工 業種의 중요성이 높지만 단기 직·간접 고용효과는 消費財 業種에 미치지 못함
 - 93년에서 96년 사이의 연평균 매출액증가율은 조립가공업종이 20.5%로 가장 높고 기초소재업종 16.4%, 소비재업종 11.7% 순임(제조업 평균 16.7%)
 - 반면 생산 10억 원당 직·간접 고용유발인원은 소비재 업종이 41명으로 가장 높고 조립가공업종 23명, 기초소재 업종 18명 순임(제조업 평균 26명)
- (基幹産業 與否) 基幹産業의 경우가 성장성이 높아 장기적인 고용유발효과가 크지만 단기적인 직·간접 고용유발 효과는 非基幹産業에 미치지 못함
 - 기간산업의 93년에서 96년 사이의 연평균 매출액증가율은 18.3%로 비기간산업의 15.9%에 비해 높음
 - 반면, 생산 10억 원당 직·간접 고용유발인원은 비기간산업이 28.1명으로 기간산업의 20.6명에 비해 많음
- (規模別 分類) 성장성이나 직접적인 고용유발효과 면에서 大企業이 우월한 것으로 나타남
 - 93년에서 96년 사이의 매출액증가율은 대기업이 17.9%로 중소기업 13.9%, 벤처기업 16.0%에 비해 높음
 - 매출액이 1% 증가할 경우 고용인원수는 대기업의 경우 0.13% 증가하는데 반해,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은 각각 1.08%, 0.68% 감소함
 - 벤처기업의 경우 중소기업보다는 우월하지만 대기업에 비해서는 장·단기 고용유발효과가 약한 것으로 나타남

단기적 직·간접 고용유발효과는 소비재 업종이 크지만 성장성 측면에서는 조립 가공 업종이 중요함

- 생산 품목에 따른 분류: 제조업을 생산 품목에 따라 기초소재, 조립가공, 소비재 업종으로 분류한 경우
 - 성장성을 기준으로 한 장기 고용유발효과면에서는 조립가공업이 가장 우월한 반면, 소비재의 경우 그 효과가 가장 미약함
 - 조립가공업의 93년과 96년 사이의 연평균 매출액 증가율은 20.5%를 기록하여 기초소재업의 16.4%,

-
- 소비재업의 11.7%에 비해 높음
- 고용유발계수를 기준으로 한 직·간접적인 고용유발효과는 소비재의 경우가 가장 크며 조립가공업과 기초소재업의 경우 평균에 다소 못 미치는 수준임
 - 생산 10억 원이 유발하는 직·간접적인 고용유발 인원은 소비재의 경우가 41명으로 가장 크며, 기초소재업과 조립가공업의 경우 각각 18명과 23명을 기록하여 제조업 전체 평균인 26명에 못미침
 - 직접적 고용유발효과만을 보여주는 고용계수를 이용한 분석의 경우 조립가공업과 기초소재업이 평균을 약간 상회하는 고용유발 효과를 가진 반면 소비재는 미약함
 - 매출액이 1% 증가하였을 경우 고용 인원은 기초소재업종과 조립가공업종의 경우 각각 0.13%, 0.15% 증가하는 반면, 소비재업의 경우 0.31% 감소함

<그림 6> 제조업 품목별 분류에 따른 분석 결과





<표 3> 생산품목별 매출액 증가율 및 고용유발계수

	매출액증가율 (‘93~’96 연평균 성장율, %)	고용유발계수 (명/10억 원)	고용계수
제조업 평균	16.7	26.0	0.02
기초소재업종	16.4	18.0	0.13
조립가공업종	20.5	23.0	0.15
소비재업종	11.7	41.0	-0.31

주 : 굵은 숫자는 평균보다 높은 경우를 표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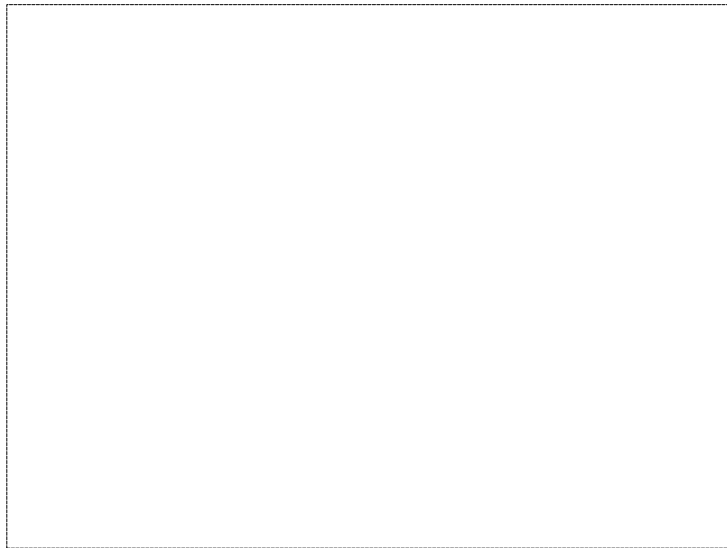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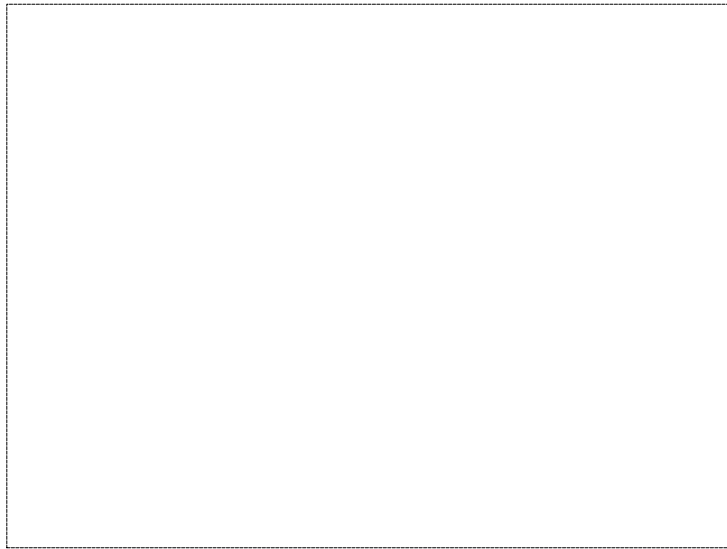
○ 기간 산업 여부

기간산업의 경우 성장성이 높지만 단기적 직·간접 고용유발효과는 비기간산업에 미치지 못함

- 기간산업의 경우 성장성이 높아 장기적인 고용유발효과가 크지만 단기적인 직·간접 효과는 비기간산업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기간산업의 연평균매출액 증가율은 18.3%로 비기간산업의 15.9%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임
- 반면 생산 10억 원 당 고용유발 인원은 기간산업의 경우 20.6명으로 비기간산업의 28.1명에 비해 낮게 나타남
- 그러나, 기간산업의 직접적인 고용 효과는 큰 것으로 나타남

-
- 매출액이 1% 증가하였을 경우 고용 인원은 기간산업의 경우 0.20% 증가하는 반면 비기간산업의 경우 0.07%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7> 기간산업 여부에 따른 분석 결과



<표 4> 기간산업 여부별 매출액 증가율 및 고용유발계수

	매출액증가율 (‘93~’96 연평균 성장율, %)	고용유발계수 (명/10억 원)	고용계수
제조업 평균	16.7	26.0	0.02
기간산업	18.3	20.6	0.20
비기간산업	15.9	28.1	-0.07

주 : 굵은 숫자는 평균보다 높은 경우를 표시함

벤처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장기적으로나 직접적인 고용유발효과가 높지 않지만 일반 중소기업보다는 성장성과 고용유발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남

○ 제조업내 규모에 따른 분석 결과: 대기업, 중소기업, 중소기업내 벤처기업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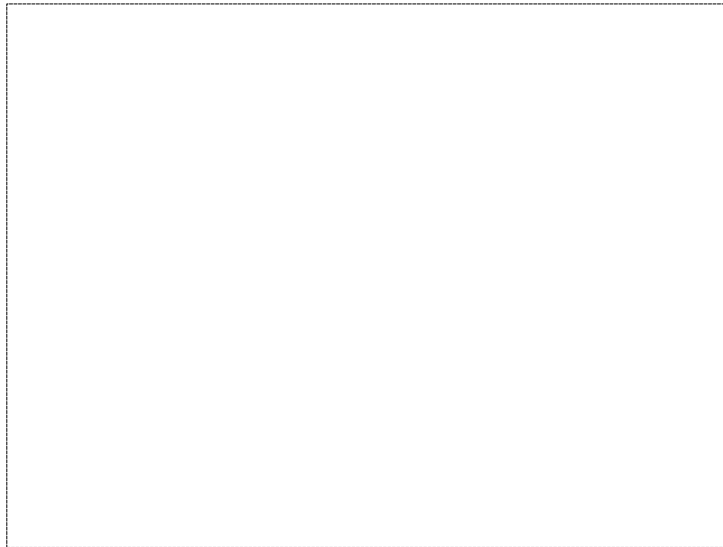
- 규모에 따른 고용유발계수는 구해질 수 없기 때문에 고용계수를 이용한 분석만을 시행함
- 대기업 및 중소기업 그리고 벤처기업에 대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대기업이 성장성 측면이나 고용유발효과면에서 우월함
 - 대기업의 연평균 매출액증가율은 17.9%로 나타나 13.9%를 기록한 중소기업이나 16.0%의 벤처기업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임
 - 매출액이 1% 증가하였을 경우 고용인원 수는 대기업의 경우 0.13% 증가하는데 반해, 중소기업은 무려 1.08% 감소하며 벤처기업의 경우에도 0.68%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하지만 중소기업 내에서는⁵⁾ 벤처기업의 성장성과 고용유발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벤처기업의 경우 매출액증가율이나 고용계수가 모두 중소기업에 비해서 높게 나타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4) 벤처기업의 경우 중소기업 중 D29~D33산업과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관련 처리업(K72)이 포함되는데, 서비스업의 경우 제조업과 달리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구분한 자료를 구할 수 없어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관련 처리업(K72)의 경우 모두 중소기업으로 가정하고 이 산업 전체를 벤처기업 범주에 포함시켜 분석하였음

5) 중소기업 내의 벤처기업에 대한 해석은 지금까지와는 다름. 즉 벤처기업이 중소기업의 일 부분에 해당되므로 벤처기업에 대한 분석 결과를 해석할 때 그림에서의 중소기업 위치를 전체 평균으로 간주하여야 함

- 결국 벤처기업 부문이 영세한 규모와 낮은 사업 성공 가능성 등으로 전체적으로는 성장성과 고용흡수력이 그리 크지는 않지만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 부문 내에서는 그래도 고용유발효과가 큰 부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음

<그림 8> 대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표 5> 규모별 매출액 증가율 및 고용계수

	매출액증가율 (‘93~’96 연평균 성장율, %)	고용계수
제조업 평균	16.7	0.02
대기업	17.9	0.13
중소기업	13.9	-1.08
벤처기업	16.0	-0.68

주: 굵은 숫자는 평균보다 높은 경우를 표시함

IV. 示唆點

○ (일자리 創出 優位 産業)

- 성장성과 고용흡수력이 모두 평균 이상인 부문은 서비스業과 中間知識集約的 産業 밖에 없음
- 대부분의 부문에서 성장성이 높으면 단기 고용효과가 낮고, 단기 고용유발효과가 높으면 성장성이 낮은 相衡關係가 존재하고 있음
 - 성장성이 가장 높은 지식집약적 산업의 단기 직·간접적 고용유발효과가 가장 미약함
 - 생산품목별 분류의 경우에도 장기적인 고용유발효과가 적은 소비재 부문이 단기적인 직·간접 고용유발효과는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 기간산업의 경우에도 장기적인 고용유발효과는 크나 단기적인 직·간접효과는 비기간산업에 비해 적은 것으로 나타남
- 벤처기업의 성장성과 직접적 고용흡수력은 모두 평균 이하이며 특히 고용흡수력의 경우 평균에서 크게 떨어짐
 - 자료의 한계로 간접적인 고용유발 효과를 고려하지 못하고, 벤처기업에 대한 분류가 포괄적으로 이루어져 그 성장성이나 고용 흡수력을 다소 과소 평가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함

○ (政策的 示唆點)

- 일자리 창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서비스업과 中間 지식집약적 산업을 중시하여야 함
- 장기적 산업구조조정 방향과 합치되기 위해서는 단기 고용유발효과보다 성장성을 더 중시하여야 함
- 최소한 단기적으로는 벤처기업 육성이 가져올 고용 증대 효과가 기대 이하일 것이라는 점에 유의하여야 함

○ 부문별 분석 결과

서비스업과 中間지식집약적 산업 이외에는 장·단기 고용흡수력 사이에 상충관계가 존재함

- 첫째, 서비스업과 中間지식집약적 산업은 장·단기 고용흡수력이 모두 평균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음
- 이 두 부문은 그래프상의 D영역에 위치하고 있어 성장성(장기 고용유발기대)과 고용유발계수(단기 직·간접 고용흡수력)가 전산업 평균 이상이었음

- 둘째, 나머지 대부분의 부문에서는 성장성과 단기적 고용유발효과 사이에 상충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지식집약도에 따른 분류의 경우 성장성이 가장 높은 지식집약적 산업의 단기 직·간접적 효과가 가장 미약함
 - 생산품목별 분류의 경우에도 장기적으로 가장 효과가 적은 소비재 부문이 단기적인 직·간접 고용유발효과는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음
 - 기간산업의 경우도 장기적으로는 고용유발효과가 비기간산업에 비해 크나 단기적인 직·간접효과는 적은 것으로 나타남
- 셋째, 간접적 고용유발효과를 고려하지 못한 한계가 존재하기는 하나, 벤처기업의 성장성 및 단기 직접적 고용흡수력은 평균이하로 나타났음
 - 특히, 거의 평균 수준인 성장성에 비해 고용흡수력은 평균에서 크게 뒤떨어진 것으로 나타남

<표 6> 부문별 일자리 창출 효과 분석

		장기 효과 (매출액 증가율)	단기 직·간접 효과(고용유발계수)	단기 직접 효과 (고용계수)
산업 전체	대분류별	서비스업>전기가스 ≥제조업>건설업	서비스업>건설업> 제조업>전기가스	서비스업>전기가스 ≥제조업>건설업
	지식집약도별	지식집약>중간지식 집약>비지식집약	중간지식집약>비지 식집약>지식집약	지식집약>비지식집 약>중간지식집약
제조업	생산품목별	조립가공>기초소재 >소비재	소비재>조립가공> 기초소재	조립가공> 기초소재>소비재
	기간산업 여부	기간>비기간	비기간>기간	기간>비기간
	수출기업 여부	내수>수출	-	내수>수출
규모별	대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대기업>벤처>중소	-	대기업>벤처>중소
	중소기업, 벤처기업	벤처>중소	-	벤처>중소

주: >는 거의 비슷한 경우를 의미

일자리 창출 효과 극대화를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서비스업과 중간 지식집약적 산업을 중시하여야 함

장기적 산업구조조정과 합치되기 위해서는 단기 고용유발효과보다 성장성을 더 중시하여야 함

최소한 단기적으로는 벤처기업 육성이 가져올 고용 증대효과가 기대 이하일 것이라는 데 유의하여야 함

○ 정책적 시사점

- 첫째, 서비스업과 중간지식집약적 산업 중심의 일자리 창출 정책 추진이 필요함
 - 이 양 부문은 공히 성장성과 고용흡수력이 평균 이상으로 나타나 산업구조조정 방향과 모순되지 않으면서도 단기 직·간접 고용유발효과가 높음
 - 중간지식집약적 산업의 경우 성장성은 지식집약적 산업에 못미치나, 사상 유래가 없는 실업 급증 사태를 맞이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성장성이 평균 이상이면서 단기 고용유발효과가 높은 이 부문을 중시하여야 할 것임
- 둘째, 성장성과 단기 고용유발효과가 상충하는 경우 장기적 산업구조조정과 합치될 수 있도록 성장성이 높은 산업을 더 중시하여야 할 것임
 - 산업구조 조정과정에서 퇴출되어야 하는 산업이 단기적인 고용 효과가 있다는 이유로 정책적 지원 대상이 되어 퇴출이 미루어진다면 이는 경제 전체의 성장을 저해하여 장기적인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임
 - 따라서 성장성이 높은 부문인 지식집약적 산업과 제조업내 조립가공 산업 및 기간 산업을 중심으로 투자 재원이 배분되어야 함
 - 특히 미래의 산업구조 조정 방향을 고려한다면 지식집약적 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우선시되어야 할 것임
- 셋째, 벤처기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생각보다 높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점에도 유의하여야 함
 - 물론 이는 현재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발달을 촉진시키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됨
 - 또한 벤처기업에 대한 분류가 포괄적으로 이루어져 그 성장성이나 고용 흡수력을 다소 과소 평가하였다는 한계도 존재함(부록 참조)

-
- 그러나 이런 점을 감안하다고 하더라도 벤처기업의 고용 흡수력이 평균보다 크게 낮기 때문에, 벤처기업에 대한 엄밀한 정의를 토대로 분석을 진행할 경우에도 A영역에서 B영역으로 이동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됨
 - 결국 위의 분석은 최소한 단기적으로는 실업 대책으로서의 벤처기업 육성 효과가 기대 이하일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음

(홍 성 민 hsamu@hri.co.kr, 이 보 성 bslee@hri.co.kr)